

## ‘열등한’ 일본인과 ‘신비화’된 일본제국: 나치제국의 이데올로기와 프로파간다의 간극에 대하여\*

이 경 분 | 서울대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

인종이데올로기가 중요한 국가정책이었던 나치제국에서 일본인과 일본군인들은 인종적 차별을 받았다. 1936년 반공산주의협약체결, 1938년 문화교류협정 체결 이후, 전쟁기에 더욱 가까워지는 일본과 독일의 관계는 삼국동맹체결로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일본과 독일의 우호관계가 깊어질수록 일본인에 대한 차별 또는 인종이데올로기는 논리적으로나 공식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다. 일본 쪽의 항의도 항의지만 프로파간다적인 차원에서 결코 유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독일과 일본의 동맹관계를 과시하는 문화행사에서 인종이데올로기와 프로파간다의 괴리는 어떤 양상을 띠었으며,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이런 의문으로 시작하는 본 논문은 나치제국의 국가첩보원(SD = Sicherheitsdienst)이 작성한 비밀문서 『제국으로부터의 소식』(Meldungen aus dem Reich)과 독일의 코블렌츠(Koblenz) 연방문서보관소의 “독일협회” 자료를 통해 일본과 독일의 문화프로파간다 이면에 숨은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국으로부터의 소식』의 문서 중에서는 1942년의 심도 높은 일본관련 보고서 「시민들이 일본에 대해 가지는 견해」(Die Sicht Japans in der Bevölkerung)를 다룰 것이고, 코블렌츠 연방문서보관소의 자료 중에서는 독일에서 인종차별을 당한 일본인, 일독혼혈에 관한 문서(R64IV/31권)와 1942년 9월18일의 만주국 건국 10주년 기념연주회 자료(R64IV/63권, 90권, 180권, 210권)를 인용하고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독일의 인종이데올로기는 전쟁 프로파간다를 위해서는 예외를 두었고, 실제와 상황의 요구에 따라 모순도 묵인하였다. 또한 전체적으로 볼 때, 독일 매체에 나타나는 일본군대를 신비화하는 정치적 프로파간다에 비해, 일상생활에서 일본인은 ‘뭔가 열등한’ 인종으로 차별을 받았지만, 다른 한편, 일본제국을 상징하는 일본음악가는 독일과 일본의 프로파간다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독일에서 전쟁이전의 일본 이미지는 기모노, 시쿠라, 게이샤, 비단등과 같이 여성적이고 에로틱한 이미지가 지배적이었으므로, 잔인하고 폭력적인 일본군대의 이미지와는 충돌하는 것이었지만, 이것은 일본인을 인종적으로 차별하면서 동시에 ‘게르만족보다 더 게르만족 같다’고 여기는 모순이 공존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아니었을까 한다.

주제어: 나치제국의 인종정책, 일본제국의 프로파간다, 만주국 건국 10주년 행사, 안익태, 고노에 히데마로, 나치스문화선전정책, 제국음악협회

\* 본고는 만주학회 2010년 하계 워크숍에서 발표한 텍스트를 수정한 것임을 밝힌다.

## I. 들어가며

전쟁과 대중을 선동하는 체제에서 프로파간다는 무기에 못지않는 위력을 가진다. 중일전쟁시기 일본에서는 영화를 “선전전의 기관총”으로, 사진을 “단도”이자, “수십만 수백만 장 인쇄 배포되는 독가스”<sup>1</sup>라고 하는 강력한 표현이 떠돌았고, 식민지 조선에서도 음악을 총칼과 같은 군수물자로 여기는 주장이 1940년대 잡지<sup>2</sup>에 씌어졌다.

이런 현상은 제2차대전 시기가 라디오, 영화, 사진과 같은 첨단 테크닉의 사용으로 전쟁의 승패에 미치는 프로파간다의 위력을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실험할 수 있었던 때였음을 시사해준다. 특히 나치 독일은 선전부장관 괴벨스(Joseph Goebbels)의 권한 하에 라디오 방송을 비롯하여 ‘문화영화(Kulturfilm)’라 불리는 선전영화장르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프로파간다 정책에서 일본제국의 모범이 되었다. 더욱이 일본선전정책에 대한 독일의 영향력은 단순히 테크닉의 차원을 넘어 ‘제국문화원법’(Reichskulturkammergesetz)과 같이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것으로까지 확대되었다.<sup>3</sup>

일본의 관점에서 보면 독일제국과 일본제국과의 연관성은 매우 긴밀하고 비중이 커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반대의 관점에서 보면 사정은 다르다. 실제 독일 나치시기의 문서를 보더라도, 독일매체에서 일본제국과 일본인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는 인상을 받는다.<sup>4</sup>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었겠

1. 사진주보 2호, 정근식, 「일본 식민주의의 정보통제와 시각적 선전」, 『사회와 역사』 82집, 한국사회사학회, 2009, 65 재인용.
2. 양훈, 「전쟁과 음악 - 군곡조가요이야기」, 『조광』 85호, 1942. 11. 김수현의 편, 『한국근대음악기사자료집』, 9권, 민속원 2008, 417-422 재인용. 계정식, 「음악은 군수품이다」, 『신시대』 3권 6호, 1943/6, 『한국근대음악기사자료집』, 9권, 451 재인용.
3. 정근식, 위의 글 68. 1940년 일본외무성 편찬 자료 『独逸の宣傳組織 と其の實際』(日本國際協會)에 근거함.
4. Friese, Eberhard. 1994. “Das deutsche Japanbild 1944 - Bermerkungen zum Problem der auswärtigen Kulturpolitik während des Nationalsozialismus,” *Deutschland-Japan: historische Kontakte*. Bonn. pp. 265-283; Mathias-Pauer,

지만, 나치의 인종이데올로기도 한몫 했으리라 추측된다. 일본이 나치제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자 했던 것과 달리, 독일인들에게 일본인은 열등한 아시아인종으로 그리 긍정적이지 못했다.<sup>5</sup>

독일인들이 가진 편견 중에는 예를 들면, 일본인을 ‘황색 위험(Gelbe Gefahr)’, 또는 ‘일본은 졸부, 벼락부자, 크게 된 소인(小人)’이라고 하거나, ‘일본이 독일의 도움으로 대동아 제국을 건설했다’라든가, ‘일본이 덩핑으로 전 세계를 기습하리라’는 말이 있었는가 하면, 어머니가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모멸과 수모를 받고 직장에서 해고된 독일국적의 아들, 딸이 쓴 인종적 차별에 대한 보고서도 있다.

나치독일과 일본제국이 제2차 대전 중의 정치적, 군사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독·이·일 삼국동맹을 구축했던 역사적 사실도 나치제국의 정책 중에 핵심 이데올로기인 인종문제의 측면에서 보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1933년 나치당이 집권한 후, 독일 인종을 ‘건강하게 보존’하기 위해, 정신병자나 신체적 장애자, 동성연애자 등의 독일인, 북구적인 아리아인이 아닌 인종, 즉 저열한 인종 또는 결합이 있는 인간을 살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까지 허락하지 않았는가.<sup>6</sup> 1935년 나치는 아리아인이 아닌 인종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뉘른베르크 인종법을 만들어(9월 15일 통과시킴) 나치인종정책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당시 뉘른베르크에서 이 과정을 지켜 보았던 베를린 독일(獨日)협회(Deutsch-Japanische Gesellschaft)의 일본총무 사카이나오에<sup>7</sup>는 “나치당은 나치가 아니거나 아리아인이 아니면 인간도 아니다라고 한다 ... 오늘은 유대인이 차별의 대상이 되고, 내일은 폴란드인이, 아마도 모래는 일본인이 그렇게 될 지도 모른다”<sup>8</sup>라고 했다. 물론 학살을 당했던 유

Regine/Krebs, Gerhard. “Die japanisch-deutschen Beziehungen 1933-1941.” Haasch, Günther/Kloepfer, Albrecht (ed.). 2000. *Japan-Deutschland Wechselbeziehungen III. Ausgewählte Vorträge der Deutsch-Japanischen Gesellschaft Berlin 1991-1994*. Berlin. pp. 33-37.

5. Adolf Hitler, *Mein Kampf*. München 1938, pp. 318-319. Friese, Eberhard. 위의 글, pp. 269-270 재인용.
6. 데이비드 웰시, 『독일 제3제국의 선전정책(원제 The Third Reich: Politics and Propaganda)』(최용찬 옮김), 해안: 서울 2000, p. 111.
7. 독일문서에 나타나는 일본이름은 정확한 일어 원명을 알 수 없다.

대인과 폴란드인에 비하면 일본인은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우대를 받았다고 할 수 있지만, 당시 독일제국에서 일본인이 느끼는 존재적 위기감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게 만드는 대목이다.<sup>9</sup>

하지만, 1936년 반공산주의협약체결, 1938년 문화교류협정 체결이후, 전쟁기에 더욱 가까워지는 일본과 독일의 관계는 삼국동맹체결로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일본과 독일의 우호관계가 깊어질수록 일본인에 대한 차별 또는 인종이데올로기에 수정을 요구한다. 동맹국에서 동맹국의 국민을 ‘공식적’으로 차별한다는 것은 어딘지 논리가 서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종 이데올로기가 중요했던 나치제국에서 황색인종이라는 이유로 3등급으로 취급되었던 일본인들은 삼국동맹협약체결 후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는가? 독일과 일본의 동맹관계를 과시하는 문화행사에서 인종이데올로기와 프로파간다의 괴리는 어떤 양상을 띠었으며,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 1. 자료와 연구 방법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해 나치제국의 국가첩보원(SD=Sicherheitsdienst)이 작성한 비밀문서 『제국으로부터의 소식』(*Meldungen aus dem Reich*)과 독일의 코블렌츠(Koblenz) 연방문서보관소의 “독일협회”자료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국으로부터의 소식』은 신분이 철저하게 은폐된 SS대원이 전쟁시기 시민들이 국가 정책과 전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객관적으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술집이나 식당, 직장과 공장 등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은밀하게 관찰하여, 1939년 겨울부터 매주 3회, 1940년 5월부터 1943년 여름까지는 매주 2회, 각 분야별로 작성 한 문서이다. 특히 『제국으로부터의 소식』

8. Günther Haasch (Hg.), *Die Deutsch-Japanischen Gesellschaften 1888-1996*, Berlin 1996, p. 208.

9. 이에 따라 독일협회의 후원으로 요한 폰 레어스(Johann von Leers)가 작성한 항의서한을 1934년 나치정당간부에게 보냈다. “Das deutsche Japanbild 1944 - Bemerkungen zum Problem der auswärtigen Kulturpolitik während des Nationalsozialismus,” p. 270.

의 1942년 8월 11일자 문화항목에 일본에 관해 심도 있게 보고된 「시민들이 일본에 대해 가지는 견해」(Die Sicht Japans in der Bevölkerung)<sup>10</sup>가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코블렌츠 연방문서보관소의 자료 중에서 독일에서 인종차별을 당한 일본인, 일독혼혈에 관한 문서(R64IV/31권)와 1942년 9월18일의 만주국 건국 10주년 기념연주회 자료(R64IV/63권, 90권, 180권, 210권)를 선택했다. 후자의 경우, 1942년 8월 11일 보고된 「시민들이 일본에 대해 가지는 견해」와 시기적으로 가장 가깝고 일본/만주국의 관점에서도 비중이 큰 문화 행사였으므로, 일본, 만주, 독일 3국의 프로파간다를 잘 관찰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독일학계에서 독일과 일본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 중 그나마 활발한 영역은 제2차 대전 시기일 것이다.<sup>11</sup> 나치제국과 일본제국의 (삼국) 동맹관계는 독일 쪽의 관점에서 흥미 있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실제 독일연방문서보관소의 1차 자료를 사용하여 일본에 대한 나치제국의 이데올로기와 프로파간다 정책의 간극을 밝힌 연구는 눈에 띄지 않는다. 물론 독일연방문서보관소의 1차 자료를 활용한 연구서로서 귄터 하쉬(Günther Haasch (ed.))의 『독일협회 1888~1996』(*Die Deutsch-Japanischen Gesellschaften 1888~1996*)이 있지만, 이것은 독일협회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연구이지, 이데올로기와 프로파간다의 간극을 밝히는 연구는 아니다.

- 
10. Heinz Boberach (ed.), *Meldungen aus dem Reich 1938-1945: Die geheimen Lageberichte des Sicherheitsdienstes der SS*, (Herrsching 1984), 9권, pp.4042-4047.
  11. Kreiner, Josef (ed.). (1984) *Deutschland - Japan. Historische Kontakte*. Bonn; Kreiner, Josef (ed.). (1986) *Japan und die Mittelmächte im Ersten Weltkrieg und in den zwanziger Jahren*. Bonn; Kreiner, Josef and Regine Mathias (ed.). (1990) *Deutschland-Japan in der Zwischenkriegszeit*. Bonn; Martin, Bernd and Gerhard Krebs (ed.). (1994) *Formierung und Fall der Achse Berlin-Tōkyō*, München; Sommer, Theo (1962) *Deutschland und Japan zwischen den Mächten 1935-1940*. Tübingen; Spang, Christian W., „Wer waren Hitlers Ostasienspezialisten?“ (2 Teile), in: *OAG Notizen*, 4/2003, pp.10-21, 5/2003, pp.12-25; Spang, Christian W./ Rolf-Harald Wippich (ed.) (2006) *Japanese-German Relations, 1895-1945. War, Diplomacy and Public Opinion*, London; Meissner, Kurt (2006). *Deutsche in Japan 1639-1960*. Tokyo; Hübner, Stefan, „Hitler und Ostasien, 1904 bis 1933. Die Entwicklung von Hitlers Japan- und Chinabild vom Russisch-Japanischen Krieg bis zur „Machtergreifung.“ *OAG Notizen*, 9/2009, pp.22-41.

본고에서는 독일과 일본의 나치제국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간극을 보여줌으로써 전쟁시기 동맹국 일본과 관련해서 표면에 잘 드러나지 않는 독일 정치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자 한다. 자료에 의해 나누어지는 4가지 차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종이데올로기와 일상생활의 간극, 둘째, 인종이데올로기와 프로파간다의 간극, 셋째, 프로파간다와 프로파간다의 간극, 넷째, 정책과 실제의 간극이라는 측면이다.

## II. 이데올로기와 실제의 간극: ‘비아리아인=유대인’이라는 오해 또는 ‘열등한’ 일본인

1933년 나치정권이 들어서자 독일 이곳 저곳에서 유대인과 ‘유색’인종인 아시아인 및 혼혈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1936년 1월 5일, 일독 혼혈아가 독일협회에 보낸 문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내 아버지는 20년간 네덜란드령 인도의 농장경영을 했는데, 거기서 일본인인 어머니와 결혼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약 40년 전에 독일로 되돌아 오셨지요. 그 이후 내 부모님은 쪽 독일에서 사셨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들을 오로지 좋은 독일인으로 교육을 하였고, 오로지 독일어만 배우도록 했습니다. 오빠는 1914년 8월 전쟁지원자로 신청하여 전체 전쟁기간동안 전방에서 싸웠지요. 아버지는 오랜 병환으로 1925년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그가 남긴 우리의 재산은 꽤 많았으나 인플레이션으로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지금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1925년 이래 나치당을 지지했고, ...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도시의 동부에서 1930년 SA가 행진할 때 나치깃발을 내달랐던 유일한 주민이었습니다. 나치운동의 투쟁은 당시에 유대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항상 유대인에 대한 투쟁이라고들 했습니다. 한 번도 비아리아인에 대한 투쟁이 아니었습니다. 1933년 아리아인 법령이 나온 이후 어머니와 저는 퇴직 공무원 부부로부터 항상 다음과 같은 말을 들어야 했지요. ‘아시아인, 독일과 일본의 짬뽕, 아프리카 중국인, 너와 관계하는 것은 인종을 더럽히는 것이다’, 또 더 심하게는 어머니에게 ‘(더러운) 아시아에미, 일

본인 꺼져버려’ 등으로 욕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말을 길에서 우리 등 뒤에다 마구 퍼부어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독일인인 것에 항상 자랑스러워했고, 독일인처럼 행동하였습니다. 이전에는 독일적인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던 인간들이 이제 우리를 욕하고 경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비독일인이라 칭해졌고, 자주 외국여자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이유로 해서 이제 저의 약혼마저 깨어져버렸어요 ... 약혼자를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고 6년 이상 그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었는데 말입니다.

저와 어머니에 대한 모멸의 욕설에 대해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리고 법정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신분증, 또는 우리가 독일인이라는 증명서를 — 제가 결혼할 수 있도록 — 받게 해 주실 수 없으신지 부탁드립니다. ...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서는 욕설과 경멸의 소문이 재빨리 퍼져서 제가 일자리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어처구니없게도) 유대인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를 통해서 볼 때 소문이 얼마나 위험한지, 사람들이 비아리아인이라면 오로지 유대인으로만 이해하니까요 — 제가 살기 위해 절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렇게 부탁을 드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sup>12</sup>

이 청원서를 분석해 보면 인종적 아이덴티티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를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독일인들 사이에서 비아리아인과 유대인과의 개념에 혼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나치스의 인종 구분을 보면 가장 높이 평가되는 인종은 북구적 아리아인, 가장 밑바닥을 차지하는 인종이 유대인과 집시(신티 로마)이다. 이들은 정착하지 않고 이곳 저곳 유랑하는 족속으로 문화를 파괴할 위험이 매우 크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아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에도 여러 계층의 구분이 있는데, 대체로 이탈리아인과 같은 남방계 인종, 슬라브계/아시아인(슬라브계와 아시아인이 거의 같은 수준임), 흑인의 순이었다. 물

---

12. 베를린의 독일협회에 보낸 청원서(1936. 1. 5.), BA R64 IV/31(독일 코블렌츠 연방 문서보관소), 112-114(이경분 번역).

론 이 구분은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철저하고 일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어차피 인종이론은 문제가 많은 비합리적인 것이었으므로, 체계적 이론의 성립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일반인들에게는 세심한 구분보다 비아리아인=유대인이라는 식의 단순한 도식이 오히려 통용되고 있음을 위의 글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혼동은 교육수준이 낮은 하층민의 경우에 국한되었던 것만은 아니었으리라 추측된다. 그 한 예로 라이프치히 대학에서는 일독 혼혈학생들이 어머니가 ‘유색인종에 속한다’는 이유로 대학의 학생회로부터 유대인과 똑같은 학생카드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sup>13</sup>

둘째, “좋은 독일인”이라는 자부심<sup>14</sup>을 강조하는 이 청원자는 나치스의 반유대주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이 “1930년 SA(나치 돌격대원)가 행진할 때 나치깃발을 내달랐던 유일한 주만”이라고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 그 역시 반유대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나치당을 추종하는 지지자임을 피력하여 나치정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나치들에게는 독일인의 ‘순수한 피’를 가지지 않은 자는 아무리 충성하고 아첨해도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극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소용이 없음을, 또한 어떤 혼합이든 인종혼합은 “원치 않는다(unerwünscht)”는 나치원칙의 심각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눈치이다. 마치 유명한 유대인 테너 리하르트 타우버(Richard Tauber)가 나치신문의 반유대적 비판에 견디다 못해 히틀러에게 이를 호소하는 편지를 썼던 것과 비슷하다.<sup>15</sup>

나치당원이었던 한 독일인은 장모가 일본인이라고 해서 나치당에서 제적당하는 일도 있었고, 또 위의 청원자처럼 1920년대부터 나치추종자였으나, 아버지가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나치당에서 배제 당하였다고 보고되어 있다.<sup>16</sup>

13. BA R64 IV/31, 44-46.

14. 대체로 독일계 유대인 대다수는 “존경받는 중산층”(최창모, 『기억과 편견 - 반유대주의의 뿌리를 찾아서』, 책세상 2004, p. 106)으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보다 오히려 민족적 보수당을 지지하였고, 스스로 좋은 독일인, 즉 끈직한 ‘애국자’들이 많았다.

15. 이경분, 『망명음악 나치음악 - 20세기 서구 음악의 어두운 역사』, 책세상 2004, p. 24.

16. Günther Haasch (Hg.), *Die Deutsch-Japanischen Gesellschaften 1888-1996*, p.

셋째, 유대인의 경우뿐 아니라, 혼혈일 경우에도 결혼하는 데 불리했음을 알 수 있다.<sup>17</sup> 1935년의 뉘른베르크법에 따라 아리아인은 비아리아인과의 결혼이 금지되었으므로, 위의 청원서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파혼되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여자의 경우보다 남자의 경우에 결혼은 더 까다로워서 내무부의 지시에 따라 인종연구소에서 ‘인종생물학적’ 추천서를 제출해야 했다.<sup>18</sup> 결혼과 같은 일상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모국에서 3등급 시민”이 되느니, 차라리 망명을 가는 것이 낫다고 여기는 혼혈 청년도 있었다.<sup>19</sup>

결국 이 청원서는 독일협회의 도움으로 제국외무부에 증명서를 신청하였는데, 1936년 1월 22일자 관청의 답변은 신청자가 비아리아인이자라면, (독일인 피를 가졌다는) 아리아인 증명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예를 들면 비아리아인이라는 이유로 일자리를 얻을 수 없게 될 때, 특별 증명서를 신청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sup>20</sup>

나치정부 하에서 일본인에 대한 차별로 인해 여러 가지 불평이 나오자, 일본과 관련 있는 자리에서는 ‘일본인도 유색인종으로 보아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나치제국의 유명한 인종연구가 한스 귄터(Hans F. K. Günther)는 일본인을 저열한 인종에서 ‘고귀한 인종’으로 설명하기 위해

212. Friese, Eberhard. 1994. “Das deutsche Japanbild 1944 - Bemerkungen zum Problem der auswärtigen Kulturpolitik während des Nationalsozialismus,” p. 270.

17. 나치의 젊은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SS대원의 경우에도 인종보존의 법령에 따라 결혼의 문제가 골치아픈 일이었다. 아리아인이 아닌 여성과 결혼하지 못하게 한 원칙 때문에 SS대원 중에는 SS보다는 여성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원칙은 말대로 실천되지 못하였고 후에는 권고사항으로 바뀌었다. Gudrun Schwarz, “Siegfried und Brunhild. Ein Herrenmeschenpaar,” Friedländer, Saul/Rüsen, Jörn, 2000. *Richard Wagner im Dritten Reich*, München. pp. 251-259.
18. 1936. 7. 25. 신청하여 1937. 5. 12 받은 결과. BA R64 IV/31, 295. 더욱이 1941년 12월 1일부터는 혼혈이나 비아리아인 뿐 아니라, 아리아인도 결혼할 때 보건부에서 “결혼하는 데 하자가 없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결혼이 가능했으므로 혼혈 독일인은 결혼하기에 이중으로 까다롭고 불리하게 되었다. Christian Zentner (ed.), *Der Zweite Weltkrieg, Texte, Bilder, Karten, Dokumente, Chronik*, München (연도 없음), p. 672.
19. 독일협회에 쓴 문서(1939. 7. 12), BA R64 IV/31, 278면. 어차피 혼혈이라는 이유만으로 독일제국에서는 개인의 사회적 인간적 행위와 상관없이 열등하게 취급되었던 것이다.
20. BA R64 IV/31, 108.

안간힘을 썼다.<sup>21</sup> 그는 일본인과 독일인은 같은 인종의 ‘힘’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며, 독일-일본 혼혈아를 비아리아인이 아니라 독일-헝가리, 독일-터키, 독일-핀란드의 혼혈과 같은 경우로 인정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오토 쿨멜(Otto Kümmler)<sup>22</sup>도 일본인종의 한 부분이 서유럽에서 퍼지게 되는 아리아인의 원인종이었다고 주장하였다.<sup>23</sup>

하지만, 나치당의 인종정책사무소의 엄격한 이데올로그 발터 그로스(Walter Groß)는 “만약 일본인에게 고대유럽의 피가 들어왔다면, 몽고인, 중국인, 한국인, 만주인도 다 그러할 터이고, 동쪽 끝에 있었던 일본인에게 ‘북구적’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들어갔다고 생각지 않는다. ... 만약 이것을 인정한다면 모든 아시아인들을 아리아인으로 인정해야 하고, 또한 같은 이유로 아프리카의 모든 흑인집단을 아리아인종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석기시대에 북구 아리아인종이 이동한 흔적이 이들에게도 틀림없이 남아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sup>24</sup>

그로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피할 수 없다면, 일본인 인종자체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평가절상이 아니라, 베를린에 머물고 있는 일본인 50여 명에게만 (주로 기업가, 정치가, 예술가 등) 특별히 예외적인 법적용을 하자고 제안하였다.<sup>25</sup>

21. BA R64 IV/31, 18-19.

22. *Die Kunst Chinas, Japans und Koreas* (중국, 일본, 한국의 예술, Wildpark-Potsdam 1929)의 저자이다.

23. “Nachrichtendienst des Japanischen Vereins,” No. 293. 1933. 11. 1. Günther Haasch (Hg.), *Die Deutsch-Japanischen Gesellschaften 1888~1996*, p. 215. 재인용.

24. BA R64 IV/31, 16-17.

25. BA R64 IV/31, 19.

### III. 프로파간다의 프로파간다: 1942년 신비화된 일본제국 또는 인종이데올로기와 프로파간다의 간극

열등한 아시아 인종으로 여겨지던 일본인들이 영웅적인 독일인들 못지않게 위대한 인종으로 선전되는 것은 태평양 전쟁 후, 계속적으로 승리를 거두었던 때였다. 1942년 8월 11일, 『제국으로부터의 소식』에 「시민들이 일본에 대해 가지는 견해」가 5페이지 분량으로 보고된 것은 일반적으로 일본에 대한 언급이 매우 빈약한 것을 고려해볼 때, 의미심장하다. 왜 하필 이 시기에 일본에 대해 보고서가 작성되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1942년 여름에 독일인들 사이에서 일본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래의 인용문에도 언급되었듯이) 이는 신문, 잡지, 책, 영화, 강연 등 1942년 상반기 독일매체에서 일본에 대한 보도가 대량으로 쏟아진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우선 「시민들이 일본에 대해 가지는 견해」의 첫 부분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이 전쟁에 참전하고 특히 동아시아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성공을 거둔 이래, 여러 번 반복되어 보도되는 바와 같이, 모든 계층의 대다수 독일국민동지들은 어떻게 일본국민이 오랜 중국과의 전쟁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강한 힘으로 새로운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점점 더 깊게 생각하게 된다. ‘황색 위험’이라는 피상적인 얘기를 벗어나서 대체로 국민동지들은 ‘일본인의 정신과 영혼의 상태’에 관해 깊은 관심을 보이는데, 일본이 가진 추진력의 비밀이 전쟁 물자에 있다기보다 정신상태에서 기인한다는 견해이다.

제국의 곳곳에서 보내온 보도에 따르면, 신문, 잡지, 책, 영화, 강연 어디서든지 이 테마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데, 이를 독일시민들은 환영한다는 분위기이다. 일본의 비기독교적, 비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는 태도가 삶과 정치 그리고 전쟁에 적합한 전투 형태를 만들었으며, 이것이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은 독일제국의 나치적 세계관과 종교적인 상황과 여러 모로 비교되고 있는 듯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독일인들이 가졌던 일본상이 점점

개선되어가고 있음이 관찰된다. 허나 여기에는 수정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

하지만 특히 일본군에 대한 이미지가 발전되는 것은 일본의 전투 상황소식을 통해서인데, 이에 비추어 보면 우리 독일군의 성과는 정당하게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고들 말한다. 지금까지는 독일군인이 세상에서 최고라는 견해가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예를 들면 일본수영선수가 홍콩 앞바다에 있는 지뢰를 제거했다든지, 죽음을 우습게 여기며 폭탄을 지고 말 그대로 직접 적군의 선박을 향해 날아가는 일본 공군이야기, 또는 일본의 특수 U 보트의 얘기 등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자기 희생(예를 들면, 전함을 파괴하기 위해 자폭하는 행위)이 없음을 다소간 “열등감” 콤플렉스를 불러일으켰다. 다시 말해, 일본인은 ‘독일인보다 더 독일적’이라는 것이다. 수백 년 전 독일 전설의 영웅에게서나 알려졌던 그런 특징을 오늘날 일본인들에게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황색 위험’이라는 표어적인 말들이 공존하는 가운데, 독일인들 사이에는 일종의 비관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즉 우리 독일 역사가 이전에 한번 보여준 그 힘의 충만함이 이제 일본인에게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그 신비하고 위대한 힘이 현재 우리 스스로 행한 전투보다는 오히려 일본인의 전투를 더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우리 기독교의 세기가 아마도 ‘다시 좋은 그 시절을 회복하지 못하리라’고 말하기도 하고, 일본의 힘이 언젠가 우리를 공격할지도 모른다고 말하기도 한다.”<sup>26</sup>

이 보고서는 1941년 태평양전쟁 발발 후, 동남아시아에서 승승장구하던 일본군이 1942년 여름 독일군의 성과를 능가할 만큼 신비화되는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보고서의 행간에서 독일시민들 머리 위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예감할 수 있다.<sup>27</sup> 1942년 여름은 독일이 소련과

26. Heinz Boberach (ed.), *Meldungen aus dem Reich 1938-1945: Die geheimen Lageberichte des Sicherheitsdienstes der SS*, (Herrsching 1984), 9권, pp. 4042-4043.

27. 물론 『제국으로부터의 소식』에서 이미 1941년 8월 25일 보고서에 독일군의 빠른 승리 소식에도 그리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며, 소련군의 강한 저항에 어두운 전망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기록되어 있다. Heinz Boberach (ed.), *Meldungen aus dem Reich 1938-1945*, 8권, p. 2686.

의 불가침조약을 깨고(1941년 6월 22일), 소련을 공격하여 일사천리로 모스크바까지 진격했지만, 겨울의 추위와 소련군의 맹렬한 역공격으로 독일군이 퇴각한 경험이 있었던 때였다. 이런 경험을 한 독일시민들에게 일본군의 철두철미한 자기희생이 매우 인상적이었던 것 같다.<sup>28</sup> 히틀러유겐트 식의 헌신도 일본의 ‘가미가제’식 자기포기에는 비교의 상대가 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열등감’이었다.

더욱이 일본군인의 철저함이 높이 평가되었고, 그 동안 독일군인이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도 상대화되고 있음도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황색 위험”이라는 말처럼, 막강한 일본이 아시아를 휩쓸고, 그 칼날을 독일로 향해 돌릴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표현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일본군에 대한 독일시민의 이런 저런 의견은 독일선전부의 통제를 받는 독일매체의 보도를 근거로 해서 나온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독일인이 일본군에 대해 얻는 정보는 모두 이중으로 검열 통제된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일본군대가 외부에 정보를 알릴 때 일차적으로 프로파간다적 효과에 의해 가공한다.<sup>29</sup> 그리고 이를 독일매체에 보도할 때, 독일선전부가 독일군의 프로파간다를 위해 또 한 번 걸러서 내보내기 때문이다. 1942년 독일군에 대한 상대적 평가를 무릅쓰고 일본군대의 소식과 일제 프로파간다를 대량으로 풀어 놓은 이유는 무엇인가? 열등하다고 규정되었던 일본인이 인종이론과 달리 아리아인 못지않음이 부각되는데, 왜 독일 선전부는 이런 일본선전을 허락하였을까? 독일 군대의 입장에서 불리할 수도 있는 보도가 시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오히려 의도된 것이었을까? 위의 서술을 볼 때, 당시 일본군대는 ‘잔인하고 폭력적’이라는 컨셉의 프로파간다를 내세웠고, 이것이 독일매체에서도 큰 효과를 보이고 있

28. “바로 이런 태도가 일본이 지금까지 전쟁에서 지지 않고 현재 대동아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얻었던 진정한 이유이리라”라고 보고한다. 위의 글, p. 4044. 또 나치당에서는 “일본 힘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독일어로 출판하였다. Albert Fürst von Urach, *Das Geheimnis japanischer Kraft*, Berlin Zentralverlag der NSDAP 1943.

29. 예를 들면, 일본군의 가미카제특공대도 사실은 군인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 아니라, 명령을 받은 군인은 자신과 가족을 위한 명예심과 불복종시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같은 처지였다. 하지만, 일본프로파간다는 천황을 위한 군인들의 자발적 행위로 왜곡하였다.

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독일군대는 (물론 독일군역시 실제로는 잔인했지만) 잔인하지 않으며, 도덕적일 뿐 아니라, 자기통제가 가능한 철저한 엘리트의 이미지를 내세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sup>30</sup>

하지만 보고서의 끝부분으로 갈수록 일본식의 전투형태를 독일인이 배워야 할 모델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으로 기울어진다. 예를 들면, 사무라이처럼 총검으로 적군의 목을 수북이 베어버린 타케모리라는 일병의 일화를 언급하면서, 미친 듯 날뛰는 살인자를 영웅적 태도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제시한다. 또한 일본여성이 출정하는 아들에게, ‘아니다, 내 아들이야, 영웅적 죽음을 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야. 살아서 집에 돌아오기 위해서가 아니란다’라고 말하는 것을 인용하며, “정말 여성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sup>31</sup>라고 반문한다. 보고서의 뒷부분으로 가면, 일본식 전투와 자기 희생은 독일인에게는 낯설고 비인간적이라고 결론 내린다. 하지만 이런 의견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일본군의 위력을 신화화하는 과정에 그리 큰 걸림돌이 되지 못했다.<sup>32</sup> 독일매체에서 일본군대의 잔인하고 강력한 이미지를 대대적으로 보도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면 무엇인가?

#### IV. 만주국 건국 10주년 기념 연주회. 누구를 위한 프로파간다였는가 또는 프로파간다와 프로파간다의 간극

한편에서는 일본인에 대한 인종적 차별이 여전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일본의 위력이 절정에 달하였고, 독일인들 사이에서 일본군의 놀라운 투쟁력과

30. 독일군대 전시회 카탈로그 Hamburger Edition, *Verbrechen der Wehrmacht. Dimensionen des Vernichtungskrieges 1941~1944*. Verlag des Instituts für Sozialforschung 2002.

31. Heinz Boberach (ed.), *Meldungen aus dem Reich 1938-1945*, 9권 4043.

32. 이상하게도 보고서 작성자는 이런 의견을 일반시민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특정 잡지의 글에서 인용하고 있는데(Heinz Boberach (ed.), *Meldungen aus dem Reich 1938-1945*. 9권, p. 4047),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견해가 나오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자기희생이 회자 되었던 1942년, 만주국 건국 10주년 행사(9월 18일)가 있었다. 베를린에서 개최된 이 만주국 기념행사에서는 일본음악가로서 안익태가 자작곡 <만주국 축전곡>(을 직접 지휘하였다. 지금까지 이 사건은 안익태의 ‘친일인가 애국인가’라는 이분법적 관점에서만 다루어졌지만,<sup>33</sup> 여기서는 1942년 독일과 일본/만주국의 프로파간다의 관점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먼저 일본지휘자가 나치제국에서 음악활동을 하였다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치제국의 인종정책에 따른 두 가지 측면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째, 유대인 음악가가 가장 먼저 청산된 분야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였다.<sup>34</sup> 오토 클렘퍼러(Otto Klemperer), 프리츠 부쉬(Fritz Busch), 부루노 발터(Bruno Walter), 만프레드 구르리트(Manfred Gurlitt) 등 유대인은 모두 정권초기에 해고되었다. 성악가나 악기를 다루는 연주가의 경우는 인기가 좋은 경우 한 동안 연주행위가 가능했지만, 지휘자의 경우는 아무리 유명해도 오케스트라의 공적인 상징성과 지휘자의 대표성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만큼 비중있게 다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괴벨스가 제국 최고 오케스트라로 키운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단원 중 유대인 피가 섞인 사람이 1940년에도 있었지만,<sup>35</sup> 지휘자의 경우는 상상이 불가능한 일이었다.

둘째, 나치제국에서 음악가로 활동을 할 수 있으려면, 제국음악협회에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야 가능했다. 그리고 회원이 되려면, 반드시 첨부해야 할 세 가지 서류가 있는데, ① 학력 증명서 및 프로필 ② 여권사진 ③ 본인과 배우자의 아리아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sup>36</sup>

이런 문화 정치적 배경에서 SD보고서 「시민들이 일본에 대해 가지는 견

33. 송병욱, “안익태의 알려지지 않은 두 작품”, 《객석》 2006년 3월호, pp. 86-89; 이경분, 『잃어버린 시간 1938-1944. 안익태의 숨겨진 삶을 찾아서』, 서울: 휴머니스트 2007.

34. 모든 연주회는 원칙적으로 선전부의 허락이 전제되었다. 이는 곧 연주회 기획단계에 서부터 누가 연주하고 무슨 곡목을 연주하는지 자동적으로 자기 검열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더욱이 1943년 3월부터는 모든 행사에 국가정보원을 초청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항상 통제와 검열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35. 1/4 유대인일 경우 어느 날 갑자기 체포될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활동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Enrique Sánchez Lansch. *Das Reichsorchester - Berliner Philharmoniker* (DVD) 2007.

36. BA Kobl R 64 IV/81권, 110면.

해]가 씌어졌지 한 달 가량 후 개최된 만주국 10주년 기념 연주회를 분석해보자. 오후 6시 베를린 필하모니 연주홀에서 개최된 이 연주회<sup>37</sup>에 관한 매체의 보도는 다음과 같다.

“10주년 만주국—베를린 축제”

베를린에서도 만주국 건립 10주년 기념 축하 행사가 열린다. 만주국에서 보낸 외교 사절 튀.이.웬 각하의 주관으로 9월 18일 18시 금요일 베를린 필하모니의 대강당(베른부르거 슈트라세 23번지)에서 유명한 일본 지휘자 에키타이 안의 지휘 하에 축하 연주회를 개최한다. 안 씨의 지휘 하에 베토벤의 에그몬트 서곡과 베토벤 7번 교향곡이 연주될 것이다. 연주회 2부에서는 지휘자 에키타이 안의 작품, 즉 판타지 <에텐라쿠>와 만주국 건립 10주년 기념을 위해 작곡된 <대(大)오케스트라와 합창을 위한 축전음악>이 연주될 것이다. 후자는 초연이며, 합창 노래 텍스트는 에하라 고이치가 썼다.<sup>38</sup>

만주국 설립은 1932년 2월 18일,<sup>39</sup> 일본이 만주를 독립국가로 인정한 것은 1932년 9월 16일, 독일이 인정한 날은 1938년 5월 12일이었다. 연주회 날짜 9월 18일은 만주국 건국일보다 오히려 일본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날에 가깝다. 어찌된 일인가?<sup>40</sup>

더욱이 프로그램을 언뜻 보더라도 연주회가 만주국과는 크게 상관이 없어 보인다. 연주회 전반부에서 연주되는 베토벤의 <에그몬트> 서곡이나 7번 교향곡은 만주국과 관련이 없고, 후반부의 <에텐라쿠>도 일본을 상징하는 음악이었을 뿐, 만주국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었다. 연주자는 아무도 만주국과 관련이 없다. 베를린 대 방송 오케스트라와 라미 징계만인사프트 합창단이 출

37. 연주곡목: 베토벤 에그몬트 <서곡>, 베토벤 7번 교향곡 \*휴식\* 안익태 <에텐라쿠>, 안익태 <만주국 축전곡>.

38. BA Kobl R 64 IV/193권, 10면.

39. 만주국 건국의 공식 승인 날짜는 3월 1일이다. 조언해주신 윤휘택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40.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존재와 도움이 행사의 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Kurt Wilhelm, *Richard Strauss persönlich. Eine Bildbiographie* (Henschel, 1999), 615.

연했고, 지휘는 ‘일본지휘자로 유명’했던 안익태였다. 청중도 손님처럼 자리를 차지한 소수의 만주국 관료와 일반 유학생 및 일본인들을 제외하면 대다수가 독일인이었다.<sup>41</sup> 그렇다고 하이라이트 곡 <만주국 축전곡>의 작곡가가 만주인인 것도 아니다. 유일하게 만주국과 관련 있는 것은 합창가사를 쓴 만주국 외교관 예하라 고이치 뿐이다. 하지만 그는 동경제대 법학부를 졸업한 일본인이었고, 가사도 만주어 또는 만주국민의 대다수가 쓰는 중국어가 아니라, 독일어였다. <만주국 축전곡>의 악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2006년 송병욱이 발굴한 문화영화<sup>42</sup>에서들을 수 있는 합창부분의 텍스트를 보면 이 곡이 실제로 만주국과 어떤 관계가 있는 지 머리가 가우뚱해진다. 이런 의심이 들게 만드는 합창가사를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10년 세월 제국이 무르익었네.  
부지런한 땀은 보답 받았네.  
민중은 환호하고  
나라는 저 높이 빛나네.

하나의 생각으로 뭉쳐  
사람들은 희망으로 번성하리.  
난이 환하게 피었으니,  
새 질서도 첫 열매를 맺었네.

일본과 우리는 튼튼하게 연결되었네.  
하나의 심장처럼, 신성한 목표를 가지고  
영원한 평화를 위해  
독일은, 또 이탈리아도 지고의 노력을 기울이네.

- 
41. 독일연방문서보관소의 영상보관소에 있는 문화영화 “Festliches Konzert zur Zehnjahrfeier der Reichsgründung Mandschoutikou” (16mm 필름, 길이 85m, 흑백 영화) 참고. 徳永康元, 『ブダベスト日記』, 新宿書房 2004, pp. 49-54.
42. 독일연방문서보관소의 영상보관소에 있는 만주국 건국 10주년 기념 문화영화 “Festliches Konzert zur Zehnjahrfeier der Reichsgründung Mandschoutikou” (16mm 필름, 길이 85m, 흑백).

영원한 봄날은 이제 머지 않았네,  
 모든 족속이 만족할 그날이.  
 보라! 저 만주의 평원 위에  
 향기로운 난이 환하게 피어있으니. (강조 인용자)<sup>43</sup>

텍스트의 핵심이 되는 세 번째 연을 분석해 보면, 두 가지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하나는 만주국은 일본에 연결된 속국, 즉 일본이나 다름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독일과 이탈리아의 동맹국이 전력투구하고 있으며, 일본과 만주국도 함께 동참한다’라는 메시지이다.

한석정/임성모의 연구를 따르자면, 실제 관동군 치하의 만주국의 존재를 일본의 식민지 또는 일본의 괴뢰국이라고 단순하게 말하기는 힘들어 보인다.<sup>44</sup> 하지만 위의 텍스트에서는 만주국의 독립성을 부각시키기보다, 일본과의 연결을 강조하고 있어서, 만주국의 일본에 대한 “홀로서기와 견제, 거리 두기”<sup>45</sup>는 완전히 무시되었다.

당시 세계 권력의 중심부였던 베를린에서 이루어진 만주국 건국 10주년 행사는 만주국의 독립성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였으나, <만주국 축전곡>은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말해준다. 베를린 필하모니 홀 정면을 장식한 일장기, 만주국국기가 시각적으로도 전시해 보여주듯이, 만주국은 오히려 일본제국과의 강한 결속을 연출할 수 있는 선전의 기회로 삼았다.

또한 <만주국 축전곡>은 일본/만주국, 독일, 이탈리아 삼국동맹국의 상황

43. 3연의 독일어 원본은 “Mit Japan sind zu fest verbunden/Wie ein Herz, im heiligen Ziel./Um zu schaffen ewigen Frieden./Erstrebt Deutschland, auch Italien viel.”이다. 1943. 2. 11. 비인 연주회 프로그램 참조(Wiener Symphoniker 아카이브 제공). 합창곡의 채보는 노동은, “만주음악연구-만주국의 근대 음악정책을 중심으로”, 『근대의 문화지리 동아시아 속의 만주/만슈』,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 2007. 2. 2~3. 학술대회 자료집, 236-245.
44. 한석정, 임성모, “쌍방향으로서의 국가와 문화: 만주국관 전통의 창조, 1932-1938”, 『한국사회학』 제35집(2001), 169-195.
45. 위의 글, 176.

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만주국 10주년 기념일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합창텍스트는 이 행사가 시기적으로 당시 전시상황과 관련이 있음을 암시한다.

수도 베를린은 1941년 9월초부터 영국군의 폭격이 시작되었고, 1942년 여름이 되면 독일 서북부의 대도시도 영국군의 폭격을 받지 않았던 곳이 거의 없었으므로, 독일시민의 불안이 점점 커가는 때였다.<sup>46</sup> SD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소련과의 전쟁에서 아직 독일군이 패배한 적인 없었던 1941년 여름에조차 독일시민들은 “독일군의 성공적 보도에 그리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으며, “사람들은 자주 ... 전쟁에 관한 어두운 전망을 얘기하고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의무를 져야할 지를 생각하면서 우울해하는 분위기”<sup>47</sup>였다. 그러다보니 독일인들 중에는 아시아에서 불패신화를 뽐내는 일본이 (1941/1942년 겨울 모스크바에서 냉혹한 후퇴를 경험한) 독일군을 위해 이제 소련을 등 뒤에서 공격해 줄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던 시기였다.<sup>48</sup>

만주국과 일본을 구별하지 않는 독일인의 입장에서 보면, <만주국 축전곡>의 주된 메시지는 “영원한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동맹국 일본제국/만주국이 있고, 이탈리아도 있으니, 독일제국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곡은 동맹국 일본제국/만주국이 ‘우리가 있으니 힘을 내시오’ 라고 암시하는 음악적 격려이다.

그리고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앞에서 서술되었듯이) 당시 독일매체에서 강조되고 있던 강인한 일본군의 이미지를 통해 높아진 일본제국의 위상을 마음껏 과시할 수 있었으며, 동맹국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상대국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었다.

만주국과 일본제국, 나치제국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진 만주국 건국 10주년 기념연주회는 문화영화로 만들어 보급됨으로써 그 프로파간다적 가치

46. 영국군은 1942년 7월 초 브레멘, 7월 26/27일 함부르크, 8월 11~13일 마인츠, 9월 8/9일 프랑크푸르트, 9월 10/11일 뒤셀도르프에 폭탄을 퍼부었다.

47. Heinz Boberach (ed.), *Meldungen aus dem Reich*, 8권, p. 2686.

48. 히틀러는 독일이 패허가 되어가는 1944년에도 일본이 소련을 공격해서 독일군을 도와주리라는 기대를 버리지 못했다. Heinz Boberach (ed.), *Meldungen aus dem Reich 1938-1945*, p. 6567.

는 엄청나게 커졌다. 10분 정도의 이 선전영화에는 <만주국 축전곡>의 합창 부분이 클라이맥스를 이루는데, 이 순간 독일어 가사가 영상을 가득 채운다. 독일어를 이는 청중을 의식한 것이다. 이 문화영화의 존재는 연주회의 성공을 암시하며, 동시에 높은 프로파간다적 가치를 보여주었고, 작곡과 지휘를 맡은 안익태의 성공을 증명해주었다.

## V. 아시아인(비아리아인)의 제국음악협회 회원 등록 또는 정책과 실제의 간극

나치제국의 이데올로기와 정책이 반드시 실천되지 않았음은 위의 연주회에서 알 수 있는데, 아직 제국음악협회의 회원이 아니었던 안익태가 지휘한 것이 그렇다. 원칙적으로 당시 독일에서 음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제국음악협회 회원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독일을 잠시 방문한 객원연주자의 경우는 회원이 아니라도 가능했지만, 안익태가 1941년부터 지휘한 횡수는 밝혀진 것만 보아도 1~2회 방문하는 손님의 범위를 넘어선다.<sup>49</sup>

반면 일본귀족인 고노에 히데마로(近衛秀麿)는 늦어도 1942년 이전에 50 제국음악협회 회원으로 등록되었다. 베를린 연방문서보관소에 그의 회원증이 문서로 남아 있지 않지만, 코블렌츠의 연방문서보관소에 있는 독일협회의 문서에는 고노에가 오페라극장에서 지휘를 자주 하였으므로, “독일무대에서 활동하려면” 제국연극협회에서 회원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편지(1941. 11. 18.)와 가입신청서류가 함께 첨부되어 있다.<sup>51</sup> 그 후 독일협회와 제국연극협회

49. 안익태는 1941년 7월에 베를린에서 이미 지휘를 한 흔적이 있었으므로, 그렇다면 그 후 약 2년이 지난 후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었고, 그 동안에는 회원이 아닌 상태에서 연주활동을 하였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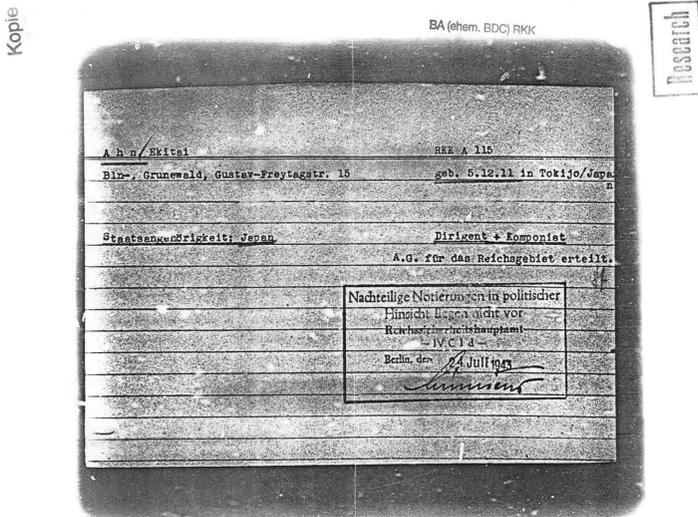
50. 고노에가 회원이 된 시점은 아직 자료 부족으로 확인 할 수 없으나, 늦어도 1942년 초 또는 1941년 말에는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으리라 추측된다. 왜냐하면 1942년 2월 11일 편지에 고노에가 회원신청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이 없으므로, 고노에의 회원등록은 이미 그 이전에 완료되었음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51. R 64 IV/ 81, 110면.

간의 편지교환이 이루어지고, 고노에가 이미 제국음악협회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또다시 제국연극협회에 ‘등록할 필요는 없다’고 확인(1942년 3월 6일자)되었다.<sup>52</sup>

다시 말해, 만주국 행사에 제국음악협회 회원인 고노에 히데마로가 지휘하지 않고 회원도 아닌 안익태가 지휘하였다는 의미이다. 더욱이 피로 본다면 일본인보다 낮게 취급되던 식민지 한반도 출신이었던 안익태는 일본인 피보다 ‘열등하고 불순한 조선인’이었으니, 제국음악협회법으로나 인종이데올로기로 보나 안익태가 불리한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안익태는 1942년 베를린의 만주국 건국 10주년 행사연주회를 성공리에 마치고, 다시 한 번 1943년 2월 11일 빈에서 <만주국 축전곡>을 연주하는데, 이 때도 제국음악협회 회원이 아니었다.

하지만, 두 차례의 만주국 기념행사 연주회를 마친 후, 1943년 7월 24일 안익태는 ‘조선인’으로서는 유일하게 독일제국음악협회 회원이 된다. 베를린 연방문서보관소에 소장되어 있는 안익태의 회원증은 다음과 같다.



‘동경 출생, 생일 1911. 12. 5. 국적: 일본. 직업: 작곡가, 지휘자, 독일제국 범위 내에서 일할 수 있음’이라고 적혀있다(베를린 독일연방문서보관소 제공).

이 회원증으로만 본다면 안익태는 ‘순수 일본인’으로 보인다. 출생지가 동경으로 허위 기록<sup>53</sup>되어 있다. 1943년 8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연주회 프로그램<sup>54</sup>에는 출생지를 평양으로 기록했던 것과 달리, 인종 정책의 원칙을 고수하는 제국음악협회의 회원으로 승인을 받으려면 형식적으로 ‘일본인’으로 해야 절차가 간단했으리라 짐작된다.

하지만 위의 문서를 자세히 보면 “정치적으로 하자가 없음”이라는 문구의 사각형 도장이 찍혀있는데, 나치의 행정원칙을 생각해 볼 때, 이런 도장을 찍으려면 증명서, 추천서와 같은 문서로서의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며, 안익태의 정치적 행위와 정치관에 대한 검토가 있었던 것을 암시한다. 음악가의 정치관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더욱이 고노에처럼 확실한 정치적 배경이 없는 식민지 출신의 안익태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보증할 수 있는가?<sup>55</sup>

일본지휘자로 유명했던 안익태의 경우, 그의 프로파간다적 가치가 인정되어 일본대사관, 만주국 공사관의 적극적인 후원이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겠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을 것이다. 독일관청이 스스로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정치적 기여가 없었다면, 회원등록이 쉽지 않았으리라. 결국 독일 제국에서 엄청난 활동을 했던 고노에보다 양적으로는 뒤지지만, 프로파간다 가치가 매우 높았던 만주국 연주회를 성공적으로 이끈 안익태는 아리아인 증명서가 없이도, 식민지 출신이었음에도 예외적으로 회원이 될 수 있었다는 결론이다.

- 
53. 안익태는 1906년 출생이나, 유럽에서는 출생연도도 1911년으로 조작하였다.
54. 베를린 필하모니 프로그램. 이경분, 『잃어버린 시간 1938-1944. 안익태의 숨겨진 삶을 찾아서』(휴머니스트 2007), p. 139 참조.
55. 일본관료들이 조선인을 차별한 사실은 당시 독일 유학생의 편지에서 알 수 있는데, 1934년 베를린으로 피아노 공부를 위해 준비하던 이에내는 일본인은 1주일이면 비자증이 나오지만, 자신은 신분이 불확실한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1달 이상 걸려 비자를 받게 됨을 자신의 후원자에게 토로한 바 있다. 야나기하라 키치베(柳原吉兵衛)에게 보낸 이에내의 편지 1934. 2. 14일자(모모야마학원 아카이브 제공).

## VI. 끝맺으며

지금까지의 서술을 정리해보면, 일상사에서는 ‘뭔가 열등해 보이는’ 일본인과 일독 혼혈에 대한 독일인의 노골적인 인종 차별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었으며, 이데올로기와 실제의 혼선도 빚어졌다. 이러한 일상사의 어려움과 달리, 프로파간다와 매체의 차원에서는 일본을 강한 의지의 나라로,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1942년에는 일본인의 투철한 군인정신이 강조되어 아리아인을 능가하는 차원으로까지 강한 일본제국의 이미지가 부각되었다.

시기적으로 잘 맞아 떨어진 만주국 건국 10주년 기념 연주회는 만주국이 독립국가라기보다 일본의 괴뢰정권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고, 행사의 공식적 주인공은 만주국이었으나, 실제로는 다양한 층위의 프로파간다가 추구되었다. 무엇보다도 프로파간다의 주된 수용자는 독일인이었다. 1942년 9월은 일본이 소련을 공격해서 동맹국인 독일을 도와주리라는 기대가 아직 환멸과 실망으로 바뀌지 않았고, 독일매체에 보도되는 아시아의 최강국 일본에 관한 관심이 뜨거웠던 시기였으니, 일본의 도움에 의지하여 독일국민에게 힘내라고 하는 메시지는 강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독일 청중에게 일본과의 동맹 관계를 상기시켜주고, 지속되는 전쟁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용기를 가지라’는 프로파간다를 성공적으로 치룬 것. 문화영화로 인해 고노에 히데마로에 못지않게 독일과 일본/만주국 프로파간에 기여한 것은 안익태가 아리아인 증명서도 없이 제국음악협회회원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여겨진다.

요약해서 말하면, 나치제국의 일상생활에서 일본인은 ‘뭔가 열등한’ 인종으로 차별을 받았던 반면, 일본제국을 상징하는 일본음악가는 독일 프로파간다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또한 독일에서 전쟁이전의 일본 이미지는 기모노, 사쿠라, 게이샤, 비단등과 같이 여성적이고 부드럽고, 예로틱한 이미지가 지배적이었지만, 전쟁 중의 일본과 일본군대의 이미지는 남성

적이고, 잔인하며 폭력적인 것이었다. 이것은 일본인을 인종적으로 차별하면서 동시에 ‘게르만족보다 더 게르만족 같다’고 여기는 모순이 공존하는 현상과 일맥상통한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밝혀낸 독일의 일본에 대한 공식적인 프로파간다와 정책 간의 다양한 모순, 그리고 이데올로기와 일상에서의 괴리는 보다 체계적인 일상사(Alltagsgeschichte) 연구로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나치제국의 문화프로파간다정책이라는 거대한 틀 속에서 특정한 필요에 의해 활동이 요구되었던 일본제국의 음악가들이 독일의 일상에서 어떤 문제에 부딪혔으며, 이를 통해 어떤 균열과 어긋남이 표출되었는지 등 “미시적 현상 속에 깃들어있는 제국의 문제를 포착”<sup>56</sup>해 보고자 하는데, 이는 차후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계정식. 1943. 「음악은 군수품이다」. 『신시대』 3권 6호 김수현외 편. 『한국근대음악기 사자료집』 9권, 민속원 2008. pp. 451.
- 노동은. 2007. 「만주음악연구-만주국의 근대 음악정책을 중심으로」. 『근대의 문화지리 동아시아 속의 만주/만주』.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 2007. 2. 2~3. 『학술대회 자료집』 pp. 215-252.
- 서재길. 2009. 「‘제국’의 전파 네트워크와 만주의 라디오 방송」. 『한국문학연구』 33집. pp. 179-209.
- 송명희. 2010. 「일제 암흑기의 한국문학; 암흑기 제만문학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와 아이덴티티 - 안수길의 <벼>를 중심으로 -」. 『현대소설연구』 43호. 한국현대소설학회. pp. 113-145.
- 야마무로 신이치. 2009. 『키메라. 만주국의 초상(キメラ-満州国の肖像)』(윤대석 역). 서울: 소명출판.
- 양 훈. 1942. 「전쟁과 음악 - 군국조가요이야기」. 『조광』 85호. 『한국근대음악기 사자료집』 9권. pp. 417-422.
- 데이비드 웰시. 2000. 『독일 제3제국의 선전정책(원제 *The Third Reich: Politics and Propaganda*)』(최용찬 옮김). 서울: 헤안.

56. 정근식, 「식민지 일상생활연구의 의의와 과제」, 『식민지의 일상 - 지배와 균열』, 문화과학사 2006, 19.

- 이경분. 2004. 『망명음악 나치음악』. 서울: 책세상
- 이경분. 2007. 『잃어버린 시간 1938-1944. 안익태의 숨겨진 삶을 찾아서』. 서울: 휴머니스트.
- 이경분. 2010. 「나치독일과 일본제국의 음악문화교류 - 제2차 세계대전시기 독일에서 활동한 일본음악가」. 『일본비평』 2호.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pp. 316-343.
- 공제욱·정근식(편). 2006. 「식민지 일상생활연구의 의의와 과제」. 『식민지의 일상 - 지배와 균열』. 서울: 문화과학사.
- 정근식. 2009. 「일본 식민주의의 정보통제와 시각적 선전」. 『사회와 역사』 82집. 한국사회사학회. pp. 41-82.
- 최창모. 2004. 『기억과 편견 - 반유대주의의 뿌리를 찾아서』, 서울: 책세상.
- 한석정·임성모. 2001. 「쌍방향으로서의 국가와 문화: 민주국관 전통의 창조, 1932-1938」. 『한국사회학』 제35집. pp. 169-195.
- 柳原吉兵衛에게 보낸 이애내의 편지 1934. 2. 14 일자(모모아미학원 아카이브 제공).
- 徳永康元 『ブダベスト日記』. 新宿書房 2004.
- Aster, Misha. 2007. *Das Reichsorchester - Die Berliner Philharmoniker und der Nationalsozialismus*. Siedler.
- Boberach, Heinz (ed.). 1984. *Meldungen aus dem Reich 1938-1945: Die geheimen Lageberichte des Sicherheitsdienstes der SS*. Herrsching.
- Friese, Eberhard. 1994. “Das deutsche Japanbild 1944 - Bemerkungen zum Problem der auswärtigen Kulturpolitik während des Nationalsozialismus.” *Deutschland-Japan: historische Kontakte*. Bonn.
- Haasch, Günther/Kloepfer, Albrecht (ed.). 2000. *Japan-Deutschland Wechselbeziehungen III. Ausgewählte Vorträge der Deutsch-Japanischen Gesellschaft Berlin 1991-1994*. Berlin.
- Lansch, Enrique Sánchez. 2007. *Das Reichsorchester - Berliner Philharmoniker* (DVD).
- Mathias-Pauer, Regine. 1984. “Deutsche Meinungen zu Japan - Von der Reichsgründung bis zum Dritten Reich.” Kreiner, Josef. *Deutschland-Japan: Historische Kontakte*. Bonn.
- Muck, Peter (ed.). 1982. *Einhundert Jahre Berliner Philharmonisches Orchester, Darstellung in Dokumenten* Bd. 3, Tutzing.
- Schwarz, Gudrun. 2000. “Siegfried und Brunhild - ein Herrenmeschenpaar. Ein Beitrag zur Geschlechtergeschichte,” Friedländer, Saul/Rüsen, Jörn. *Richard Wagner im Dritten Reich*, München, pp. 251-263.
- Wilhelm, Kurt. 1999. *Richard Strauss persönlich. Eine Bildbiographie*. Henschel.
- Witte, Karsten. 1993. “Film im Nationalsozialismus. Blendung und Überblendung,” W. Jacobsen/A. Kaes/H. H. Prinzler (Hg.). *Geschichte des deutschen Films*. Weimar/Stuttgart.
- Wulf, Joseph. 1963. *Musik im Dritten Reich*. Eine Dokumentation. Gütersloh.
- Wulf, Joseph. 1964. *Presse und Funk im Dritten Reich*. Gütersloh.

Zentner, Christian(ed.). *Der Zweite Weltkrieg, Texte, Bilder, Karten, Dokumente, Chronik*, München: Buch und Zeit Verlag.

독일 연방문서 보관소 (코블렌츠)의 자료:

R64IV/31,

R64IV/63,

R64IV/90,

R64IV/180,

R64IV/193

R64IV/210,

Reichskulturkammergesetz, Reichsgesetzblatt 1(=RGL) 1933, p. 661.

Ergänzungsgesetz, RGL 1, 1934, p. 413.

독일연방문서보관소(베를린)의 영상보관소에 있는 만주국 건국 10주년 기념 문화영화

“Festliches Konzert zur Zehnjahrfeier der Reichsgründung Mandschoutikou”  
(16mm 필름, 길이 85m, 흑백 영화).

1943. 7. 안익태의 제국음악협회회원증(Mitgliedschein der Reichsmusikkammer), 독일 연방문서보관소(베를린) 제공.

1943. 2. 11. 안익태 비인 연주회 프로그램, 비인 심포니커(Wiener Symphoniker) 문서 보관소 제공.

## The Japanese as ‘inferior race’ and the ‘mystified’

### Empire of Japan:

Gaps between race ideology and cultural propaganda in the Third Reich

Lee Kyung-Boon

Institute of Japanese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Nazi Germany the Japanese and the half-blooded Japanese were discriminated as ‘inferior race.’ This became a serious problem when the Japanese Empire formed military alliance with the Third Reich in 1940 and 1941, not only because the Japan protested against racial discrimination of its people in Germany, but also because it was disadvantageous for the German government from a propagandistic point of view.

This study explores questions about the gaps between the cultural propaganda, especially the matter of alliance events in 1942, the race politics of Nazis there and how the Nazis worked with the gaps, and puts them concretely in four dimensions; gaps between race ideology and daily life, between race ideology and war propaganda, between propaganda and propaganda and between politics and the practice.

I quote and analyze the following German texts;

*Meldungen aus dem Reich (Reports from the Third Reich)* a report drafted by Nazi secret service SD (Sicherheitsdienst) spies about the opinions of the general German people from winter 1939 until summer 1943, especially the report “Opinions of citizens about Japanese” (1942. 8. 11) and the Japan materials of Bundesarchiv Koblenz (R64 IV/ 31, 63, 90, 180, 193, 210) which contain accounts of the situation of the discriminated Japanese and the anniversary concert of national foundation of Manchukuo (September 1942), a propagandistic event in Berlin.

Key Words: race politics of Nazi Germany, war propaganda of Germany and Japan, Ekitai Ahn, the anniversary concert of national foundation of Manchukuo, cultural propaganda of Nazis, Reichsmusikkammer

이경분. 서울대 일본연구소  
서울대학교 140동 409호  
Tel\_019 382 5910/ 02 880 5122  
Email\_kyungbun59@hanmail.net